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는 책상의 밑 서랍을 열면 만나는 구절이다. 나는 글을 원고지에 한자 한자씩 써 넣는다.

책상의 밑 서랍엔 볼펜이 서너 자루가 늘 담겨있다. 볼펜 밑의 종이에 11자로 적힌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가 설렘으로 눈물방울로 언제나 새롭게 다가온다. 설렘이란 수북이 쌓인 삶의 흔적을 하나씩 둘씩 정리해가며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기쁨의 설렘이다. 눈물방울이란 마지막 그림자를 언젠가는 거둬들일 순간의 처연한 작별인사가 한 두 방울의 눈물방울로 앞당겨 다가오기 때문이다.

무슨 무거운 병이라도 지니고 있거나 중병 앓는 환자처럼 너스레 비슷한 요란을 떨고 있지만 당뇨 없고 혈압이 정상이다. 암 따위는 키우지 않는 것으로 검진 결과 밝혀졌다. 다만 세월의 무게에 삭신이 녹이 슬어 곳곳에서 예전 같지 않은 어두운 신호음이 울리고 있다. 티베트와 중국에서 익힌 자가 치료로 사혈도 하고 침도 꽂으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드문드문 살피고 있다. 항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덜어내며 가벼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다보면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소중하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생활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게 되고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거짓과 능청보다는 순수하게 진실하게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넘침보다는 부족한대로 행복인으로 자유인으로 마무리를 개운하게 하고 싶다.

덜어내고 비워가며 머묾 없는 머묾으로 흔적 없이 가고 싶다. 글쎄,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는 모를 일이나 '훅' 불어 꺼져버리는 호롱불처럼 미련도 후회도 없이 한 점의 바람이 사라져가듯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자유로운 여행의 마침표를 찍고 싶다.

찾아오는 죽음도 번거로운 일이요, 아무개 아무개가 죽음을 애도하며 꽃상여를 준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흔적도 자취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조금은 죽음을 앞당겨 내가 내 죽음의 상주가 되어 마지막 미소를 지켜보고 싶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손 마주잡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해와 달이 있어 수행승의 죽음은 외롭지 않을 터이다.

인도와 네팔, 티베트에서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겪게 되었고 그때마다 질기게도 죽음에서 부활한 누구처럼 되살아났던 것이다. 하여,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징조가 뚜렷해지면 스스로 몸과 마음을 추슬러 생각해둔 곳을 찾아 흔적도 자취도 없이 홀가분하게 개운하게 마지막 그림자를 거두고 싶다.

육체는 정직하다. 망가지기 전에 탈이 나기 전에 병(病)을 알아차리도록 신호음을 울려댄다. 자가 치료와 예방을 위해 어지간히 건강 돌봄을 시도하지만 나이를 속일 수 없듯 세월에 삭아내리는 종착역은 죽음의 문이다.

하여, 날마다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이별을 연습한다.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다보면 흔들림과 헐떡임이 줄어든다.

작설차 주전자도 하나만 남기고 나누게 되고 책과 붓글씨 그림등도 미련없이 즐거운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사람이 늙어 사라지는 것도 자연의 순리이자 법칙이다. 해질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남과 헤어짐, 자연풍광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마지막 식사에서 반찬투정이 있을 수 없듯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텅 빈 충만의 감사와 고마움뿐이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로 삶이 더욱 풍요롭고 기적으로 이어진다. 누구나 그러하듯 미운자도 보내고 나면 울컥 서러워 가슴에 짠한 아픔이 남는 법이다. 내 죽음에는 내 자신이 상주가 될 터이다.

땅이 관이 되고 하늘이 상여가 되어 산천초목 바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날 터이다. 미운 얼굴, 그리운 얼굴 가슴에 담고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나직이 불러보며 안녕이란 말을 차마 반쯤 남기리니, 한 점 바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려니,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대로 아름다운 정토의 세계이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고마움이다.

오늘도 비우며 덜어내며 텅 빈 충만의 행복인이 된다. 자유인이 된다.

이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변화에 따른 '妙'를 전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화(禪話)에는 여러 가지 설화들이 대거 등장한다. 때로는 옛날이야기 같은 전설들도 자주 나오는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은유나 어떤 상징적인 모티브를 제공하여 공안을 채택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지는 이야기들이다.

백장회해(百丈懷海:720~814) 선사는 마조(馬祖) 문하의 삼대사(三大士)의 하나로 알려진 인물이다. 걸출한 선승이었던 마조 제자에 서당지장(西堂智藏)과 남전보원(南泉普願), 백장회해의 삼대 제자가 있었다.

백장 선사에 관한 선화에는 여우 이야기가 있다. 백장야호(百丈野狐)라는 공안에 얽혀 있는 전백장후백장(前百丈後百丈)이야기이다.

먼저 〈무문관〉 2칙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백장 선사가 설법을 할 때마다 어떤 노인이 항상 대중을 따라 법문을 듣고는 대중이 물러가면 노인도 물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이 대중이 물러갔는데도 가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다. 백장 선사가 마침내 그 노인을 향해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요?" 이에 노인이 대답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가섭불 당시에 이 산에 살았는데 어떤 학인이 '큰 수행을 한 사람도 인과의 굴레에 떨어집니까?' 하고 물은 질문에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잘못 대답을 하여 오백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아 살았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저를 위하여 오직 깨달음을 열 수 있는 한 마디 법어를 주시어 여우의 몸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백장 선사가 그때 질문대로 다시 물으라 하니 노인이 물었다.

"큰 수행을 한 사람도 인과의 굴레에 떨어집니까?"

이 때 백장 선사가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서 물은 노인을 전백장(前百丈)으로 보고 답해준 백장을 후백장(後百丈)으로 보기도 한다.

〈평창〉에는 무문(無門)의 말이 나와 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고 하여 어찌 여우의 몸에 떨어지며,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不昧因果)고 하여 어찌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는가?'

이 말에서 진리를 보는 지혜의 안목을 가진다면 백장 선사가 말해주기 전에 그가 오백생을 바람과 같이 흘러 보내기만 한 까닭을 알 것이다.

고래로 이 '불락인과'와 '불매인과'를 두고 수없는 질문이 나왔으며, 대답 또한 갖가지로 나왔다. 질문은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와 '어둡지 않다(不昧)'에서 왜 여우 몸을 받고 여우 몸을 벗어나는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은 〈종용록〉에 있는 말이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모두를 없애버리는 단견(斷見)이며,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은 변화의 흐름을 따라 묘(妙)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문염송설화〉에는 "떨어지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음이여! 이 두 가지 말을 따라다니며 무리를 이루고 떼거리를 지었구나.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지만, 한씨 집 개는 던져진 흙덩어리를 쫓아가노라"고 하였다. 또 설화에 해인초신(海印超信)이 읊는다.

"어둡지 않음(不昧)과 떨어지지 않음(不落)이여! 두 가지 모두 틀렸도다.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망상분별로 헤아리며, 말에 집착하여 얽매이니 끈도 없는데 스스로 묶여버렸도다. 툭 트인 허공의 그 어디에서 더듬어 찾을 것인가? 봄이 되니 꽃이 피고 가을이 오니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오백생을 여우 몸을 받은 것은 떨어질 낙(落)자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백천의 수많은 대중들이 이것저것 헤아리는 것은 어두울 매(昧)자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다.

"떨어질 낙(落)자와 어두울 매(昧)자는 같은가 다른가?"

이 말에 대답하기를 "봄에는 난초요 가을에는 국화다"라고 대답하였다.

〈오등회원〉 '설봉도원장(雪峰道圓章)'에는 어느 날 두 스님이 백장야호를 두고 한 논쟁이 전해진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말하더라도 여전히 여우의 몸을 벗어날 수 없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서 또한 어찌 여우의 몸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설봉 선사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말했다. "떨어지지도 어둡지도 않으니 승속 모두에게 본래 꺼리고 피해야 할 차별이 없도다."

깊은 한숨은 분별망념의 증거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㉔ 상을 여읜 적멸

爾時 須菩提 聞說是經 深解義趣 涕淚悲泣 而白佛言. 希有 世尊. 佛說 如是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취 체루비읍 이백불언. 희유 세존. 불설 여시
甚深經典. 我從昔來 所得慧眼. 未曾得聞 如是之經. 世尊 若復有人 得聞是經
심심경전. 아종석래 소득혜안. 미증득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유인 득문시경
信心淸淨 卽生實相 當知 是人成就第一 希有功德. 世尊 是實相者 卽是非相 是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 시인성취제일 희유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비상 시
故 如來說名實相. 世尊 我今得聞如是經典 信解受持 不足爲難 若當來世後五
고 여래설명실상. 세존 아금득문여시경전 신해수지 부족위난 약당래세후오
百歲 其有衆生 得聞是經 信解受持 是人卽爲第一希有. 何以故 此人 無我相
백세 기유중생 득문시경 신해수지 시인즉위제일희유. 하이고 차인 무아상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所以者何 我相卽是非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卽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하 아상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즉

그 때 수보리가 이 경 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뢰었다.

"참으로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예로부터 오면서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생긴 것이오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오니 여래께서는 이름이 실다운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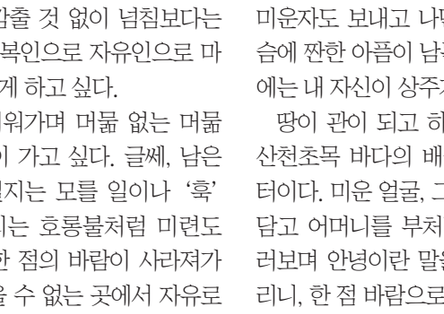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일 이 다음 세상 이천 오백년(후오백세)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사람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상'도 없는 까닭이옵니다. 왜냐하오면 나라는 상이 곧 상이 아니오며,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오래 산다는 상이 곧 상이 아니옵니다. 왜냐 하오면 일체의 온갖 상을 다 여읜 것 즉 모든 부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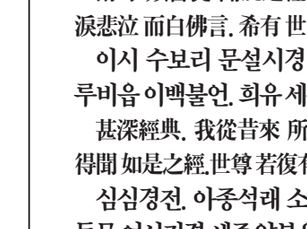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참으로 희유한 사람인 줄 알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여래가 말한 제일바라밀이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또 생각하니 과거 오백세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던 저 세상에서도 나라는 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상도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일체의 상을 여의는 것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하는 것이니 물질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나고, 마땅히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나므로, 마땅히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날 것이니라."

삶의 무한 지혜, 香향이 세상에 나왔다!!
화제의 신간
完전한 지혜의 세계, 密밀이 세상에 나왔다!!





허공천(虛空天)
향운계(香雲界)에서
향수(香水)의 비가 내려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가 향수대해(香水大海)를 이룬다.

향1권 기품, 승화, 사유, 이성(理性)의 향기
향2권 지혜, 정신, 마음, 지성(知性)의 향기
향3권 생명, 차(茶), 초월, 꽃잎의 향기를 담았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36쪽 / 향 2권 328쪽 / 향 3권 320쪽 / 정가 각 23,000원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원담 진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